

평화나눔의 시선

2026.10.08. | 제26-06호

만주에서 바라본 한반도



우리는 잘려진 반도의 남쪽에서 태어났고, 한평생 그 반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간혹 외국에 나갔을 때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국경은 머리로는 이해되나 몸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평화의 바람 기행’이란 이름으로 남북 접경지를 둘러보는 평화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과

첫날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선을 긋고 그어진 선에 따라 생각은 어떻게 고정되는지, 혹은 선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 남북의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아온 이미지는 군사분계선 남쪽 2km 지점에 있는 남방한계선입니다. 북쪽으로 같은 거리에는 북방한계선이 있고 그렇게 남북 4km 구간이 비무장지대입니다. 물론, 비무장지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민간인통제선부터 넘어야 합니다. 군인이 지키는 검문소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국경은 고사하고 국경 느낌을 주는 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민간인통제선 조차 경험할 일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떨어진 선은 더 떨어진 마음을 만들게 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선을 만나러 가보려 순례단이 꾸려졌습니다. 바로 북한과 중국, 조선과 중국이 만나는 두만강과 압록강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국경선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그 선을 넘었던 이들은 그 선을 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약 40명의 순례단이 꾸려졌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 신부님과 사무국 선생님들, 그리고 민화위에 자문을 하는 교수님들도 함께했지만 다수는 평범한 형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백두산을 가는 일정이란 것이 가장 끌렸습니다. 또 혼자 가보기 어려운 두만강과 압록강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26년 8월 17일부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4박 5일 백두산&조중 접경 평화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백두산과 만주 지역을 방문한다니 기대감은 높아지고 호기심은 넓어졌습니다.

첫 도착지는 중국 연길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언제나 긴장감을 주지만 새벽부터 서둘러 인천공항을 출발한 터라 설렘도 커졌습니다. 재중동포가 많이 사는 연길은 한글 간판이 많아 크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점심을 먹고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방천이었습니다. 두만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었지만, 강 하구 약 15km 지점에서 중국 영토는 끝나고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방천은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지역에서 닭이 울면 세 나라가 듣는다고 하니 코앞의 강을 경계로 세 나라, 세 언어, 세 시스템이 마주하고 있는 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물론 강 건너 북한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인 1844년 부제품을 앞둔 김대건 신부님은 방천과 훈춘 일대를 돌며 두만강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탐색했고 수차례 두만강을 넘나들었다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직 겨울바람이 매서운 2월, 눈 쌓인 두

만강 일대 수백, 수천 km를 걸었던 청년 김대건이 머물렀을 자리가 어디쯤일지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훈춘에서 아침 미사를 시작으로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호텔 내 세미나실 대관이 어려워, 하는 수 없이 세 명의 신부님 방으로 십여 명씩 나누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호텔 방 미사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서로의 숨소리가 가까워서 들리는 미사였습니다. 초기 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렇게 소수가 모여 외부의 눈을 피했겠거니 생각하자, 조금은 비장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이동한 곳은 도문입니다. 이곳은 북한의 남양구와 맞닿은 곳으로 역시 두만강 너머 북한의 마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관광객에게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북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학교도 찾아보고 기차역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연길로 돌아와 이웃한 용정시에서 가곡 '선구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해란강과 일송정,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조선 시대 후기, 생계를 위해 가족의 손을 잡고 만주로 넘어온 사람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간도에 자리 잡은 열사들, 학업과 장사를 위해 두만강을 넘나들며 셀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을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약조차 할 수 없던 헤어짐이 수만이요, 우연에 우연을 뚫고 다시 만나 회포를 풀던 만남이 수만이었을 것을 상상해봅니다. 그렇게 선을 넘나들던 사람들의 사연을 뒤로하고 이제 순례단은 백두산 아랫마을 이도백하로 향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사의 지향은 모두 다르지 않았을 듯합니다. 이번 순례의 백미가 될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기상이 수시로 바뀌어 선대의 공덕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천지. 몇 번 방문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가 있다는 천지를 오르기에 앞서 혹시 내 마음의 때로 인해 천지가 열리지 못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천지에 오르는 루트는 몇 가지가 된다 하는데, 우리 순례단은 북파로 오른다 합니다. 버스를 타고 백두산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좌우를 감싸고 있는 빼곡한 침엽수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은 백두산 기행문에서 백두산은 나무가 마치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해서 수해(樹海)라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탄 버스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같았습니다.

일정 구간부터는 10여 명이 타는 작은 승합차로 나누어 타고 가파른 백두산 비탈을 올랐습니다. 승합차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오르자 주변 풍경도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초목으로 변했고, 일정 고도 이상부터는 초목마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 내려 천지까지는 불과

100m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몰려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줄을 서는 짧은 시간 사이에도 바람과 구름이 정상부를 가리기도 했고, 다시 해가 나며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차례가 되어 시야에 천지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영롱한 천지가 있음이 신비로웠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큰비에도 넘치지 않으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명수 같았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이 멈추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산 길에는 장백폭포에 들렀고 오후에는 계속 서쪽으로 달려 다음 목적지인 통화시에 이르렀습니다.

통화에서는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집안시의 광개토대왕비를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찾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복도에는 실물 크기로 구성된 디지털 광개토대왕비가 있고, 네 개의 화면에는 다양한 광개토대왕 이미지가 역동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화려함으로 따진다면 실물 크기로 재현한 디지털 비석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언정, 그것은 실물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물 광개토대왕비를 보니 선대의 이야기를 후대에 들려주고 싶었던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간직해온 이들의 노고 속에서 과거와 지금이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비록 드넓은 벌판에 우뚝 솟은 이야기가 유리창에 갇힌 모습은 조금 답답해 보였지만, 오래도록 비석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점심 식사 장소는 북한 만포시가 마주 보이는 압록강변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순례 나흘 차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북한 마을 풍경이 이젠 자연스러워진 것도 신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에 나와 눈과 마음에 북녘 땅을 담았고 함께한 이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시 버스는 네 시간 가까이 더 달려 순례 마지막 도시인 단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단동은 지금까지 지나온 도시와 다른 규모였습니다. 압록강 하류는 더 넓어졌고 사람과 차도 더 분뻗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례단은 서둘러 단교(斷橋)로 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놓인 다리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중국 쪽 절반만 남아있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북중을 연결하는 다리 조중우의교가 보였습니다. 단교 위에서 철로와 1차선 도로로 연결된 이 다리를 보니 북한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있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은 물자가 오고 갈 수 있기를,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단교 중앙까지만 것이 우리가 북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이었기에 거기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순례단은 아쉬운 마음에 압록강에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단교 아래 강변은 공원으로 꾸며졌고 일부 구간은 경계석을 계단으로 쌓아 강변에 쉽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에 발 담그고 손 담그는 그때, 우리 눈앞에 작은 유람선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오성호가 아닌 인공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 북녘 사람들이 저 배에 타고 있겠구나. 순례단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본다면 같이 손을 흔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인공기를 단 배에서도 우리를 보고 손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인사였지만 우리 주변이 환대와 평화로 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심장이 쿵쥔거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순례의 마지막, 다섯째 날 일정입니다. 미사와 식사로 서둘러 아침을 시작했고 순례단은 다시 압록강 중류로 올라갔습니다. 이날은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수풍댐까지 올라갔다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북중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지만 정확하게는 강 전체가 국경을 이루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양국은 언제나 강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단, 상대 쪽 강변에 배를 접안하지만 앓는다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헤엄쳐서 상대 강변까지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닿아도 되지만, 발을 대지만 앓으면 월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겐 어색한 공동관리가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 부러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강 하구와 파주 임진강 하구도 사실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로의 불신으로 이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에서 바라본 북한은 한층 더 가까웠습니다. 나무, 경비 초소,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되었지만 순례 중 가장 가까워서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풍댐까지 오른 유람선은 아쉽게도 더 오를 수 없었습니다. 순례단도 다시 버스로 압록강 하류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후에는 황금평과 북중이 새로 놓은 신압록강대교도 둘러보았습니다. 건설한지 12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다리라 합니다. 곧 개통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니 어제 보았던 조중우의교를 넘어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동을 떠나 대련 공항으로 향했고, 늦은 밤 인천공항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4박5일, 두만강 하구 방천부터 훈춘, 연길, 도문, 용정, 이도백하, 백두산 천지를 거쳐, 통화, 집안, 그리고 압록강 하구 단동과 공항이 있는 대련까지. 총 이동 거리만 1,700km가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강과 하나의 산. 바로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긴 선이 있었습니다.

과거 만주와 한반도는 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수많은 북향민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선이기도 합니다. 순례를 마치며 선은 결코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사연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순례길을 걷고 다시 남북의 분단선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와 넓은 지리 안에서 이 선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어떤 선도 결국 사람들을 영구히 막고 가를 수 없음을 느낍니다. 바람을 막고 물을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은 선이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비록 이번에는 비행기로 한반도 북쪽을 넘어 두만강과 압록강, 그리고 백두산을 찾았지만, 언젠가 육로로 같은 곳을 방문한다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단절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될 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주와 한반도가 다시 연결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